

게임부터 탐험 · 추리까지, 넓어지는 예능의 시야



게임부터 탐험, 추리까지 예능 프로그램의 시야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먼저 MBC 새 예능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 (이하 두니아)는 게임 원작을 소재로 한다. 최근 '두니아'는



방송에 앞서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해 게임 스타일의 출연진 캐릭터 일러스트를 공개하며 기대를 높였다. '두니아'는 가상의 세계 두니아에 떨어진 출연자들이 만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두니아, 가상 경계 통한 색다른 재미 예고 '거기가...' · '범인은...' 등 궁금증 높여져

미를 예고했다. 제작진은 다양한 극적 장치와 지금껏 보지 못한 예능적 작법을 선보일 것이라 전했다. 생소한 게임과 예능의 만남이지만 인터넷 방송을 지상과 TV 예능 프로그램 포맷으로 재현해 인기를 얻었던 '비 리틀 텔레비전' 박진경 PD와 이재석 PD가 새롭게 선보이는 아쉽 작이기에 보일 성과와 반향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 게임 뿐 아니라 탐험 중계도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KBS2 '1박 2일' 유호진 PD의 새 예능 '거기가 어딘데'는 탐험 중계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며 아라비아 사막을 탐험대의 힘으로 직접 횡단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연예인 탐험 대로는 지진희, 차태현, 배성남, 조세호가 출연을 알려 신선한 조합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특히 네 명의 연예인 탐험대가 찾을 오만의 아라비아 사막은 사건 답

사 차 방문했던 유호진 PD도 쓰러질 정도로 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SBS '정글의 법칙' 등을 통해 오지와 자연 속에서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바는 있었지만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 중계는 처음이기에 그들이 펼칠 내용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유재석과 넷플릭스의 만남으로 이슈가 된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역시 독특한 소재를 담는다. '범인은 바로 너!'는 유재석, 안재욱, 김중민, 이광수, 박민영, 세훈(엑소), 세정(구구단)으로 구성된 탐험단과 매주 새로운 특별 출연자들이 함께하며 이들이 때 에피소드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풀어나가는 추리 예능이다. 이들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각자 동네 탐정, 전직 형사 등 캐릭터를 가지고 에피소드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또한 유재석이 MC가 아닌 '플레이어'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예능과는 확연히 다른 색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연출을 맡은 조효진 PD는 "실제 현실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출연진들이 플레이어로서 직접 사건을 풀어간다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획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전하며 새로운 추리 예능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처럼 게임부터 탐험, 추리 등 예능의 소재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 관찰 예능이나 리얼 버라이어티, 여행 등과 같이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 예능의 주가 된 것에 비해 확연히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다. 한 방송 관계자는 다양화되고 있는 예능 소재에 대해 "그동안 관찰 예능이 인기를 얻고 관련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비슷한 설정과 반복되는 내용에 식상하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 채널이 많아짐에 따라 시청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소재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관찰 예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신선한 예능을 위해 다양한 소재를 계속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18의 진실



1980.05.18. "잊혀져서는 안되는,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감독 박기복)에서 최수 역을 맡은 김꽃비는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8일 서울 중구 CGV명동역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9년 발생한 이철규 변호사사건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결합해 만들었다. 광주 출신인 박기복 감독은 이철규 열사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그는 "이철규 열사와의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부고를 늦게 접했는데, 그때부터 의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촬영하기까지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왜 5.18 영화를 만드냐'고 물었는데 답은 간단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

사이고,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극 중 5.18 당시 희생된 부모님 때문에 가슴 한편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최수 역을 맡은 김꽃비는 남다른 출연 계기를 공개했다. 그는 "10년 전 무진여항을 할 때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영화에 캐스팅된 법대생 최수 역의 진수현은 "처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까지 흘렸다"며 "외할아버지가 5.18 민주묘지에 계신다. 그래서 더욱 더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밝히 눈물을 흘렸다. 박 감독은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화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명의 역을 맡아 출연한 김부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몇 분을 떠올렸는데 그중 김부선 선생님이 계셨다. 시나리오를 선생님께 보냈는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읽고 '세 번 정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다'며 '사실 선생님의 투사 같은 느낌이 좋았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정의롭게 가시는 모습. 그런 게 이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오는 5월 16일 개봉한다.

'우만기' 표 기적 시작...시청률X콘텐츠영향력지수 1위

'우리가 만난 기적'이 대체작다운 압도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첫 방송부터 매회 화제가 되고 있는 KBS 2TV 월화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극본 백미경/ 연출 이형민/ 제작 에이스토리)이 콘텐츠 영향력 지수(CPI)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 '우리가 만난 기적'은 어제(17일) CJ E&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4월 1주(4월 2일부터 8일까지 기준) 영향력 지수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

프로그램, 지지하는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49세 남녀 타겟 부문에서도 1위를 거머쥐었다. 이는 뉴스 구독자 수, 직접 검색자 수, 소셜미디어 버즈량을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첫 방송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향한 폭발적인 반응을 체감케 한다. 특히 현재 방영 중인 월화극 중 유일하게 시청률 두 자릿수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영향력 지수에서도 과급력을 발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흥미진진

한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추며 안방극장을 꽉 잡고 있기에 '우리가 만난 기적'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우리가 만난 기적'은 '힘센여자 도봉순'을 함께 한 백미경 작가와 이형민 감독의 두 번째 만남으로, 탄탄한 필력과 섬세한 연출력이 시너지를 발휘, 타 작품과는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장르의 새 지평을 열며 시청자들의 인생작으로 꼽히고 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성의 드라마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으라차차 와이키키' 한 우물 통했다...시즌2 요구 쇄도



'웃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린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의 특성이 통했다. 김정현, 정인선, 이이경, 고원희, 손승원, 이주우가 출연한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실현작'이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배우'가 없었고

콘텐츠도 기존 드라마와는 달랐다. 와이키키라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답 없어 보이는 세 청년이 싱글맘과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소동들을 담아낸 에피소드 드라마에 가까웠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가우똥하게

되지만 일단 한 번 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마약 같은 매력에 있었다. 1회 시청률은 1.742%(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에 그쳤지만 최고 시청률은 2.242%까지 올랐고 4회 연장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높은 화제성을 자랑했다. 짧은 클립 영상을 소비하는 트렌드에 걸맞은 콘텐츠 덕이기도 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의 가장 큰 성과는 청춘 남녀배우의 발굴이다. 모두 오디션 통해 캐스팅된 여섯 배우는 각자의 위치에서 엄청난 열정을 내뿜으며 몸 사리지 않는 연기를 펼쳤다. '학교 2017'을 통해 차세대 코딩으로 떠오른 김정현은 코미까지 된다는 걸 입증했다. 이이경은 '고백부부'에 이어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도 독보

적인 코미디 연기로 드라마의 인기를 견뎠다. 손승원은 '청춘시대'에서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입대 전 거렬한 인상을 남겼다. 청순한 마스크의 정인선은 허당기 있는 싱글맘 역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장편드라마 첫 주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높였다. 고원희, 이주우도 이름 석 자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니아 시청자들의 시즌2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 JTBC 관계자와 배우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제 막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제작진과 배우들이 모두 한마음어리는 점이 시즌2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한편 '으라차차 와이키키' 후속 '미스 함무라비'는 오는 5월 21일 처음 방송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음력 3월 4일)

<p>▶ 쥐띠 그, 바, 오 성씨 가정에 더욱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거지는 금방 탄로 난다. 마음속 고민은 가족과 함께 풀라. 북쪽이나 동쪽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 새로운 힘이 솟는다. 매사 서서히 풀릴 듯하니 자신 있게 미래를 설계하라.</p>	<p>▶ 용띠 5, 7, 9월생 마음고생이 크겠다. 고민하지만 말고, 생각을 더 넓게 하며 용기 내면 쉽게 풀 수 있다. 친지 간 불화가 예상되니 언행 각별히 조심하라. 쥐, 토끼, 닭띠에게 이성 도움 있으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p>	<p>▶ 뱀띠 바, 오, 천, 음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
<p>▶ 돼띠 나, 오, 천 성씨는 마음 상할 듯. 쓴맛이 가시면 단맛을 더 맛볼 수 있듯 현재 문제를 지혜롭게 풀면 평온함이 일어난다. 2, 3, 8월생 북쪽에 행운이 있으니 친지, 동료와 의논해야 좋다. 독연은 피해야 밝은 내일을 이룰 수 있다. 파란색이 길하다.</p>	<p>▶ 닭띠 바, 바, 오 성씨는 진실만이 사는 길이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함께 갈 사람 찾지 말고 홀로 가라. 증권에 투자한 것 있으면 운이 따라준다. 4, 10, 11월생 의료업 변동은 길하다. 애정 갈등 심각하다.</p>	<p>▶ 양띠 바, 오, 천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
<p>▶ 호랑띠 2, 5, 7월생 자기 재주만 믿다 행운을 놓칠까 우려된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인정을 받으라. 그, 오, 오 성씨 좋고달뜨더라도 그대로 있으라. 재미로 하는 오락도 오늘은 삼가라. 사랑싸움은 양보해서 푸는 것이 좋겠다.</p>	<p>▶ 말띠 3, 5, 12월생 애정적으로 부자유스러운 면이 있다 해서 좌절하지 말라. 남보다 더욱 노력하면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금운이 좋으니 더욱 분발해 행운의 열쇠 찾으라. 그, 바, 음 성씨 애정 운은 남자 쪽에서 반응이 없다.</p>	<p>▶ 개띠 바, 오, 천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
<p>▶ 토끼띠 그, 오, 오 성씨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라.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다리를 놓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거지는 마음에 담지 말고 실토하라. 1, 2, 3월생 검은색 옷은 추위도 입지 말 것.</p>	<p>▶ 원숭이띠 1, 4, 6, 10월생 상대를 설득하면 평온해진다. 이 생들 다시 먹지 않겠다 해도 침만은 뱉지 말라. 사업은 지방으로 옮겨 새롭게 도전하면 길하다. 기회를 포착해 행운을 잡으라. 귀인 도움으로 뜻하지 않게 수확하는 길이다. 남쪽에서 재물이 들어올 수다.</p>	<p>▶ 원숭이띠 바, 오, 천, 음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
<p>▶ 사슴띠 그, 오, 오 성씨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라.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다리를 놓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거지는 마음에 담지 말고 실토하라. 1, 2, 3월생 검은색 옷은 추위도 입지 말 것.</p>	<p>▶ 돼띠 바, 오, 천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	<p>▶ 원숭이띠 바, 오, 천, 음 성씨 미련스럽게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직업을 바꾸라. 돈 갖고 부자 못 되는 자 있는가. 그 좋은 머리로 짜조만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4, 5, 6월생 빨간색 옷이 당신에게 행운을 준다.</p>